

【어원 탐구 5】

국어학의 경계를 넘어

이기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어원 연구는 주로 옛말에 관한 기록과 방언의 증언에 기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어 단어들의 올바른 어원을 더듬어 찾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삶에 관한 자못 구체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어원학자는 국어학자들이 보통 읽지 않는 우리 나라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국어와 접촉을 가졌음직한 여러 나라의 언어에 관한 역사적 지식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우리 나라와 물으로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언어들도 두루 살펴야 한다. 국어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데 어원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내 넓은 공책에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예들이 여럿 적혀 있다. 그중에서 몇 예를 들어 간단히 논하려 한다. 이제 겨우 첫 삼을 뜬 것도 있어 내놓기가 부끄럽지만 어원 연구의 속내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1. 苦苦妹, 꼬꼬마

正祖 때 柳得恭이 썼다고 하는 『京都雜志』(上元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小兒用獨繭絲 繫鵝毳 順風而颺之 號苦苦妹 蒙古語 鳳凰也
(어린이들은 한가닥으로 된 생 명주실로 거위의 솜털을 붙들어 매어 바람을 따라 날린다. 이것을 '고고매'라 한다. 몽고어로 봉황이란 뜻이다. 李錫浩 역)

이와 비슷한 기록이 洪錫謨의 『東國歲時記』에도 보이는데 '姑姑妹'라 표기한 점이 다르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윗글에 나오는 '苦苦妹'가 현대 국어의 '꼬꼬마'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글학회의 『큰 사전』은 '꼬꼬마'에 두 뜻이 있다고 하였다.

- (1) 군졸(軍卒)의 병거지 뒤에 늘인, 붉은 말총으로 만든 길고 부풀한 삭모(槩毛).
- (2) 아이들 장난감의 한 가지로 실 끝에 새털이나 종이 오리를 매어 바람에 날리는 것

이처럼 '꼬꼬마'에 두 뜻을 베푼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 그 뒤의 사전들은 이것을 빼졌는데, 창이나 깃대의 삭모, 농악무를 할 때 쓰는 병거지의 모

양을 생각하면 위의 두 뜻은 새털 장식의 공통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위의 기록과 같이 분명히 몽고어 단어라고 적은 예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이 기록은 내 머리 속에 깊이 새겨졌지만,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막연히 치부하고 있었다. 몽고어에서 봉황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중세에 범어(梵語)의 garuda를 차용한 garudi(yarudi)가 있었고 근대에 중국어 '鳳凰'의 차용인 pūngquwang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389년에 중국에서 편찬된 『華夷譯語』에 보이는 “鳳凰 合魯的”와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蒙語類解』(1790년 改刊)의 “鳳凰 풍황” 등 참고.

그런데 천만몽의 일이 일어났다. 얼마전 나는 어떤 필요가 있어 중세 몽고어 자료들을 이것저것 뒤적다가 『盧龍塞略』(萬曆 38년, 1610년에 간행된 중국 河北省 盧龍縣의 地誌) 卷19에 실려 있는 중국어·몽고어 어휘집(일본 학자 이시다[石田幹之助]가 소개한 텍스트)의 다음 항목에 눈이 얼어 붙고 말았다.

鳳凰曰哈魯的 一曰苦苦妹

중세 몽고어에 '哈魯的'(garudi(yarudi)와 함께 '苦苦妹'가 있었다니, 더구나 우리 나라의 『京都雜志』에 나오는 표기와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은 이런 기록이 있다니, 나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만 것이다. 천박한 내 지식을 가지고 옛 사람의 기록을 의심했던 어리석음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이 일이 있는 뒤 며칠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뒤졌지만, 봉황을 가리킨 중세 몽고어 단어 '苦苦妹'(아마도 küktūmei)는 다른 데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盧龍塞略』의 자료는 세계 몽고어 학계에 소개된 지 오래지만, 이 단어의 존재에 관한 지적이나 어떤 논의가 있었던 흔적도 찾지 못하였다.

『京都雜志』(및 『東國歲時記』)의 기록은 지금까지 소개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와 들은 천양지차다. 이제 우리 나라 기록의 추가로 이 중세 몽고어 단어의 존재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이 단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할 계제가 되었다. '苦苦妹'를 휩싸고 있는 신비의 안개가 언제나 걷힐는지, 과연 걷힐 수 있을 것인지, 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착잡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움을 느낀다.

2. 가라치, 거러치

한글학회의 『큰 사전』(1947~1957) 여섯 권은 언제나 내 옆에 있다. 나는 국어 어휘에 관한 의문이 생기면 으레 이 사전부터 들춘다. 국어 사전의 주춧돌을 놓은 이 사전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믿는다.

이 사전에 '가라치'란 표제어가 보인다. 이 단어가 국어 사전에 실린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 출처가 무척 궁금하다. 이 사전의 초고가 남아 있다면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어 보기도 한다. 이제 '가라치'의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제》 ①정경(正卿) 이상의 벼슬아치가 출입할 때, 긴요한 문서를 담아 가지고 다니는 제기. 기름 먹인 장방형의 종이로 접어서 만들었음. ②가라치를 끼고 앞에서 다니는 조레(皂隸)(②옛말: 거러치)

맨끝에 참고로 제시된 옛말 ‘거리치’는 『訓蒙字會』(中 1)에 있는 것이다.

隸 거리치 예 俗呼皂 — 又曰牢子

이 책에서 ‘俗呼’로 제시된 단어들은 중국어의 예들이다. 위의 예에서 ‘皂隸’와 ‘牢子’는 중국어 단어로 제시된 것이다. 이 책의 ‘凡例’에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 나라 한자어로 오인하는 일이 종종 있는 듯하여 지적해 둔다.

이 ‘가라치, 거리치’는 현대국어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몇몇 방언에서 볼 수 있는 ‘거리지, 거라지’[乞人]가 이들의 잔영(殘影)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가라치’와 ‘거리치’ 사이에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큰 사전』의 편자도 이런 짐작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음상(音相)으로 보나 의미(意味)로 보나 본래의 국어 단어라기보다는 몽고어나 토이기어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특히 그 끝 음절의 ‘치’가 이런 느낌을 준다. —치가 이들 언어에서 Nomen Actoris(행위자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보아서 그런지, 이들은 몽고어와 토이기어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케 한다. 몽고어에서는 우선 qarači가 떠오른다. Kowalewski (사전)에 “le rapporteur d’un commissaire de district”, Lessing (사전)에 “Messenger in a government office : clerk, scribe”라 있으니 국어의 ‘가라치’와 일맥 상통한다. 몽고어의 qaraču도 떠오른다. 『元朝秘史』에 qaraču가 ‘下民’

의 뜻으로, qaraču bo'ol이 '下民奴婢'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본다. 1389년의 『華夷譯語』에는 '下人'이란 뜻이 붙어 있다. 이 단어는 qara의 파생어임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qara는 본뜻이 '黑'이지만 '下賤'의 뜻도 품고 있다.

그런데 토이기 제어에 원뜻이 거지로 추정되는 qaračī가 있음이 각별한 주의를 끈다. Doerfer(3,434)는 qaračī와 그 변형들이 옛 문헌에서 '거지'의 뜻으로, 현대 제어에서 '집시'의 뜻으로 쓰인 예들을 들고 있다. 한편 토이기 제어에는 qaraču도 '거지, 유목민'의 뜻으로 쓰인 예들이 보인다.

Doerfer(1,397)는 이 단어가 몽고어에서 토이기어에 들어오고 다시 페르샤어에 들어간 것으로 보았으나, Clauson(647)은 이를 비판하고 몽고어의 qaraču를 토이기어의 차용어로 보았다. 그는 이미 11세기에 이 단어가 거지의 뜻으로 쓰인 예를 들었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위에 든 여러 언어의 단어들에 대해서 그 현저한 유사성을 우연의 소치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멀리 토이기어에서 몽고어를 거쳐 국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떠돈 매우 특수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느낌이 든다.

3. 阿浪氣, 아랑주

여기까지 쓰다 보니, 나는 다시 내 공책의 첫머리에 있는 '아랑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유라시아 대륙과 대양을 떠돌아다닌 단어로, 아마도 '담배'를

제외하면, 이보다 오른편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소주는 元 나라 때에 중국과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중국 기록으로는 李時珍의 『本草綱目』에 “燒酒非古法也 自元時 始創其法”이라 한 것이 있고 우리 기록으로는 李暉光의 『芝峯類說』에 “燒酒出於元時 而唯爲藥用 不堪放飲 故俗謂小盃曰燒酒盞”이라 한 것이 있다.

몽고 문어에 소주를 가리키는 araki, ariki가 있다. Kowalewski (사전)의 araki, ariki “vin, eau de vie, boisson forte, boisson éniivrante” 참고.

『本草綱目』에 소주의 별칭으로 든 ‘阿刺吉酒’는 바로 이 몽고어 단어의 차용임이 분명하다. 국어 기록으로는 『朝鮮館譯語』에 “燒酒 阿浪氣”라 한 것이 가장 오래고 다음으로 『瀋陽狀啓』의 仁祖 19년(1641) 기록에 ‘阿郎酒’가 오래다. 이 ‘아랑주’가 1880년의 『한불조년』과 1897년의 『한영조전』에 이어져 있음을 본다.

‘아랑주’의 명맥이 아주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표제어로 국어사전에 오른 것은 李熙昇의 『國語大辭典』(1981) 이후의 일이다. 한글학회의 『큰 사전』에는 ‘아랑’(소주를 곧 뒤에 남은 찌끼)과 그 방언형 ‘아래기’가 보일 뿐이다.

소주를 가리킨 이 단어에 대한 연구로 일찍이 1936년에 일본 학자 오구라(小倉進平)가 발표한 논문이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어의 araki가 화란어(네덜란드어)의 arak이 들어온 것임을 지적하고 영어 사전의 arrack에 관한 어원 설명을 인용하여 이 단어가 아라비아어의 'araq에서 기원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어 이 단어가 알타이 제어, 길랴크어를 비롯하여 남쪽의 말레이어, 타갈로그어 등에 널리 퍼졌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가 결론 부분에서 일본어의 araki는 근세에 화란어에서 온 것이지만, 한국어의 '아랑주'(방언형 '아래기, 아랭이' 등)는 고려 시대에 몽고어에서 온 것임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새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적기로 한다.

첫째, 오구리는 1941년에 발표한 『朝鮮館譯語』의 연구에서 '阿浪氣'를 a-ra-ki[a-ra-gi]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분명히 '아랑기'라 적은 것을 '아라기'라 읽은 것은 몽고어의 araki에 끌린 탓인 듯하다. 『瀋陽狀啓』의 '阿郎酒'와 현대국어의 '아랑주'를 생각할 때, '아랑기'라 읽기에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몽고어의 araki가 국어에 들어와 '아랑기'로 변한 원인이 궁금해진다. 여기서 새삼 『큰 사전』에 있는 '아랑'에 주목하게 된다. 이 영향으로 '아라기'가 '아랑기'로, 다시 '주(酒)가 끼어들어 '아랑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하지만, 이 '아랑'을 옛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삼갈 수밖에 없다.

둘째,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에는 표제어로 '아랑주'가 실렸는데 이 단어의 어원 표시로 "자바. arak酒"라 하였음을 본다. 너무나 뜻밖이어서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제주 방언의 '아랑지'에도 같은 어원 표시가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자바.'는 이 사전 첫머리의 '줄임말표와 기호'에도 들어 있지 않으나 이 사전 안에 표제어 '자바말'이 있어 인도네시아공화국 자바섬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바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한다. Dempwolff는 어족의 여러 언어에서 소주와 같은 증류주를 가리키는 단어로 'alak(타가로그어),

‘ara’(자바어), ‘arakä’(호바어) 등이 쓰임을 들고 *‘alak을 재구(再構)한 바 있다. (‘와 ‘는 후두음을 나타냄)

『우리말 큰사전』이 어떤 근거에서 위와 같은 어원 표시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최근의 몇 예를 들면 Räsänen(1969), Onions(1966), Dauzat et al.(1971) 등이 토이기어의 arakī, 영어의 arrack, 불어의 arack 등의 근원을 한결같이 아라비아어의 ‘araq에서 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어원설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눈을 더 크게 뜨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어원 탐구에 끝막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李錫浩(譯) (1967). 『東國歲時記』(外). 서울.
- 石田幹之助 (1973). 『東亞言語史叢考』. 東京.
- 小倉進平 (1936). 「燒酒-araki」. 『朝鮮語方言의 研究』(1944, 東京)에 수록됨.
- _____ (1941). 「朝鮮館譯語」語釋. 『東洋學報』28. 3-4.
- Clauson, G. (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Oxford.
- Dauzat, A, et al. (1971). Nouveau Dictionnaire étymologique et historique. Paris.
- Dempwolff, O. (1934-38). Vergleichende Lautlehre des austronesischen Wortschatzes. Berlin.

- Doerfer, G. (1963-75).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n neupersischen. Wiesbaden.
- Kowalewski, J.E. (1844~49). Dictionnaire mongol-russe-français. Kasan.
- Lessing, F.D. (1960).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 Mostaert, A. (1977). Le Matériel mongol du Houa i i iu 華夷譯語. de Houng-ou(1387). Bruxelles.
- Onions, C.T. (1966).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Etymology. Oxford.
- Räsänen, M. (1969). Versuch eines Etymologischen Wörterbuchs der Türksprachen. Helsinki.